

“투표조작 이전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라”

담당PD 구속... 조작 사실로 드러나
엠넷 측 원본 공개 하라는 여론 거세
경찰 “의혹받는 참가자 특정엔 부담”
경찰청장 “고위 관계자 개입도 수사”

케이بل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과 ‘프로듀스48’ 제작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문자 투표 결과의 원본 데이터가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경찰이 수사 과정을 알리면서 원본 데이터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빛나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7월 처음 의혹을 제기한 뒤 제작진을 고소·고발한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두 프로그램의 연출자인 안준영 PD와 김용범 총괄프로듀서(CP)가 구속되는 등 이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엠넷 측이 더 이상 이를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가운데 3명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또 해당 인물로 추정되는 이들의 소속사 사무실

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엠넷 측이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제작진이 개입해 조작하기 전인 실제 원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이를 공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로서는 의혹을 받는 오디션 참가자를 특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더욱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엠넷 채널을 보유한 CJ ENM의 고위 제작 관계자 등을 일

견해 이들의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제작진 2명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부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포함해 1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공정 사회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 관계자가 투표 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를 1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국내 최고 가드진 꾸린 KCC의 과제

이대성과 한 팀 이정현 “KBL판 휴스턴 되겠다”

“하든과 웨스트브룩처럼 윈윈 자신”

전주 KCC는 11일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트레이드로 이대성(29)과 라건아(30)를 영입해 단숨에 우승 전력을 꾸렸다. 그동안 약점으로 손꼽혔던 가드 포지션을 강화했다. 불 핸들러가 부족해 접전에서는 이정현(32)에 이정현



이정현

게 포인트가드를 맡기기도 했던 KCC는 이대성의 가세로 천군만마를 얻었다.

둘은 지난 시즌(2018~2019시즌) 정규리그 MVP(이정현)와 플레이오프 MVP(이대성)를 양분했다. 한 시즌에 각자 다른 팀에서 MVP를 나눠가졌던 두 선수가 이듬해 한 팀에서 만난 것은 KBL 역사상 처음이다.

두 MVP의 만남에는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대표 가드진을 구성하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에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반면, 포지션 중복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정현과 이대성은 나란히 불을 잡는 상황에서 강한 ‘온 볼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격 점유율을 의미하는 USG% 부문에서 이대성은 28.9%, 이정현은 28.4%로 국내선수 가운데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3위는 같은 팀의 송교창(25.7%)이다. 국내 선수 가운데 공격 점유율 가장 높은 3명이 만난 것이다.

농구는 5명이 함께 뛰는 종목이지만, 불은 1개다. KCC는 국가대표급 선수 구성으로 전력을 꾸렸지만, 그만큼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한다.

KCC 전장진 감독(56)은 트레이드 직후 “이정현은 슈팅가드, 스몰포워드를 맡을 수 있고 이대성은 포인트가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최상의 경기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정현은 “나도 트레이드를 기사로 보고 알았다. 깜짝 놀랐다”고 운을 떼며 “생각지도 않게 좋은 선수들이(이대성, 라건아)이 왔고 우승 전력이 됐다”며 웃었다. 이어 “좋은 선수들이고 대표팀에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대성과와 서로 영리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NBA에서 (공격점유율이 높은) 제임스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휴스턴에서도 잘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KBL판 휴스턴’이 되어 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전현무, KBS 이혜성 아나운서와 열애중

진행자·게스트로 만나서 사랑으로
전현무, 이아나 SNS 팔로 호감 표현

방송인 전현무(42)와 KBS 이혜성 아나운서(27)가 연인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보도자료로 “아나운서라는 직업적 공통분모 속에서 선후배의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최근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됐다”며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밝혔다.

두 사람은 각종 방송에서 진행자와 게스트로 만나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세 차례나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5월 전현무가 진행하는 KBS 2TV ‘해피투게더4’에 이 아나운서가 게스트로 나섰다. 6월에는 이 아나운서가 DJ를 맡고 있는 KBS 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에 전

현무가 초대손님으로 앉았다. 최근인 10월 29일 전현무가 출연 중인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간담회를 이 아나운서가 진행하기도 했다.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현무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현무는 이 아나운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향을 묻는 질문에 “나이가 들기 전에는 외모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대화가 잘 통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 끌린다”고 답했다. 제작진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현무가 후배를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이 아나운서의 개인 SNS는 물론 라디오 공식 SNS까지 팔로잉하며 호감을 표현했다.

전현무는 2006년 KBS 공채 32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2012년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선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왼쪽)와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선후배 관계에서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사진제공 | KBS

넘는 녀석들 리턴즈’, tvN ‘수요일은 음악프로’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

로 입사했다. 현재 ‘KBS 뉴스9’의 주말 스포츠뉴스와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연예가중계’ 리포터, ‘도전! 골든벨’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등에도 참여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차전을 치르기 위해 레바논 원정에 나선 가운데 파울루 벤투 감독(서 있는 줄 왼쪽에서 3번째)이 11일(한국시간) 선수들에게 훈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아부다비(UAE) | 뉴스스

귀를 열겠다는 벤투 감독 “생활이든 전술이든 원하는 것 말해달라”

훈련 전 긴 시간 할애 선수들과 대화
소통의 힘으로 월드컵 본선행 메시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소 중 하나는 ‘소통’이다. 과거에는 조직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나누거나 존중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지도자가 인정받는 시대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50·포르투갈) 감독도 선수들을 향해 귀를 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레바논(14일 오후 10시·한국시간)과의 H조 4차전을 앞둔 벤투 감독은 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셰이크 자예드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첫 훈련을 진행했다. 소속팀 일정으로 뒤늦게 합류하는 권창훈(프라이부르크)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을 제외한 21명이 참가했다. 벤투 감독은 훈련에 앞서 선수단 전원을 불러 모았다. 그는 평소 훈련에 앞서

말을 길게 하는 편이 아니다.

이날은 달랐다. 벤투 감독은 20분이 지나도록 말을 이어갔고 중간 중간 선수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한과의 3차전에 대한 복기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요구 및 개선사항을 물어 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벤투 감독은 “생활이나 전술 등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며 소통의 뜻을 내비쳤다.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12일 “벤투 감독이 훈련 전 이렇게 긴 시간 선수들과 대화

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상황을 설명하고 선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스포츠계는 유독 지도자와 선수 간의 수직 관계가 강하다. 지도자와 선수를 스승과 제자로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수직 관계의 산물이다. 냉정하게 말해 지도자와 선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모으는 직장 동료다. 벤투 감독이 훈련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선수들에게 소통의 뜻을 나타낸 것 역시 선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1차 목표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소통의 힘을 더한 축구대표팀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